

# 사랑의 변주곡 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한 명 희  
(서울 시립 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올해는 김수영 사후 34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이루어진 김수영에 대한 연구는 석·박사 학위 논문만도 120편을 상회한다. 한 시인의 사후 이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경우는 시와 소설을 통틀어서 우리 문학사에서 전무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만큼 김수영은 문제적이다. 많은 연구 논문의 숫자가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김수영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의 시는 여전히 난해성을 지닌 채 다른 의미 해독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김수영 연구에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개별 시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다. 물론 「풀」이나 「폭포」, 「병풍」 등의 작품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자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이 시들을 김수영의 대표작으로 꼽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을 김수영 시답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선 김수영 시가 이루어낸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시의 제재와 언어의 새로움”(권오만 1995, 338)이 이들 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또 김수영이 시를 씀에 있어 “단시적(短詩的) 완벽성을 의도적으로 거절”(유종호 1983, 255)했다는 우리의 판단과 이들 시가 보여주는 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김수영다운 시’를 택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거나 이와 이러한 의도와 잘 부합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변주곡」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는 “우리 말로 씌어진 가장 도취적이고 환상적이며 장엄한 행복의 약속을 보여 주고 있는”(유종호 1983, 255) 시, “사랑을 주제로 한 하나의 보기 드문 절창”(이상옥

---

[주요어]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 주술관계, 전개양상, 생물, 무생물, 인공, 동식물 이미지, 광물 이미지, 시공간 이미지, 비-이미지

1983, 292), “일상의 비속성 속에서 위대성을 찾아내고, 일상의 이중성에 대한 재인식에 바탕해 일상과 혁명의 변증법을 노래한 절창”(하정일 1998, 210)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논자에 의해서는 “김수영의 인간에 대한 친화력을 대표하는 시로서 기록될 뿐 아니라, 삶의 서러움을 넘어서는 사랑의 혁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는 점에서 또한 한국 현대시사에서 기념비적”(최동호 1998, 32-33)인 작품이라고 상찬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외에도 「사랑의 변주곡」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글들은 많다. 그러나 그것을 열거하는 것은 김수영에 대해 쓴 글을 거론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작업이 될 것이다.<sup>1)</sup> 사정이 이러하므로 「사랑의 변주곡」에 대해 분석한 글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러나 이 시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들을 소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사랑의 변주곡」은 60년대 이후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읽힌 경우가 많다. 김수영이 시 속에서 ‘혁명’과 ‘4. 19’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시를 현실 참여적인 것으로 읽는 방식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남영은 이 시를 4. 19 혁명이 좌절하고 그 열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사랑과 혁명의 연관을 탐구한 시로 이해한다(정남영 2000, 234). 똑같이 「사랑의 변주곡」에서 ‘혁명’이란 시어에 중점을 두면서도 하정일은 다른 방식으로 이 시를 읽는다. 그에 의하면 이 시는 “일상의 비속성 속에서 위대성을 찾아내고, 일상의 이중성에 대한 재인식에 바탕해 일상과 혁명의 변증법을 노래한”(하정일 1998, 210) 시이다. 이들과 달리 이은정은 이 시를 현실 참여적인 시로 읽기를 거부하고 “사랑의 보편적인 본질을 모두 담은 시, 그래서 시인의 현실을 향해 키운 사랑의 내밀함을 담은 시”(이은정 2000, 430)로 읽는다.

이렇게 많은 논자들이 「사랑의 변주곡」에 주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시를 주로 그들의 글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룸으로써 이 시의 전모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의 변주곡」을 읽어 보고자 한다. 필자가 원용하고자 하는 방식은 기호학적으로 시를 살펴보는 것이다. 텍스트 외적 관계들 역시 그들 나름의 규칙적인 역사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

1) 그러나 이 많은 연구들 중에서 「사랑의 변주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을 찾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앞서 얘기한 이상옥은 “그가 사랑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도 이 시 속에 거의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옥 1983, 292)고 했지만, 그의 글을 통해 김수영이 사랑에 대해 품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들이 구조적 전체로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외적 결합을 부분적으로만, 즉 텍스트와 그들의 관계 속에서만 연구할 것이다.<sup>2)</sup>

## 2. 주술관계에 의한 체계 분석

욕망이여 입을 열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都市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三월을 바라보는 마른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우리의 밥찌끼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까지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느냐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節度는  
열렬하다  
間斷도 사랑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죽음같은  
암흑 속을 고양이와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

2) 이러한 방법은 유리 로트만이 그의 책 『시 텍스트의 구조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필자는 「사랑의 변주곡」을 분석함에 있어 이 책의 방법에 많이 의지하였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불란서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四·一九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씨와 살구씨와 곱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며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暴風의 간악한  
 信念이며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信念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  
 너는 개미이나

아들아 너에게 狂信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人類의 종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마시고 난 날에  
 美大陸에서 石油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都市의 疲勞에서 배울 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거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뛴 날이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같은 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臆想이 아닐 거다

—「사랑의 變奏曲」(1967. 2. 15)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는 총 6연 51행으로 구성된 짧지 않은 시이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이 시의 연과 행 구성상의 독특함을 지적한 바 있다. 김수영의 많은 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시 또한 행간결침과 연간결침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김수영이 「사랑의 변주곡」에서 이러한 연, 행 구성을 보이고

3) 조명제(1994, 175)는 특히 「사랑의 변주곡」의 경우, 내용과 형식이 더할 나위 없이 절묘하게 어울린 작품으로 파격적 행간결침 및 연간결침의 표현장치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지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내적 필연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회로와 체계를 밝혀내기 위해 우리는 이 시의 연과 행을 새롭게 배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텍스트의 체계를 해독한다는 것은 그 체계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다시 분절하고, 이것을 다시 결합시켜 그들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도 텍스트 해독의 한 방법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텍스트의 외형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작품 내적인 체계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의 체계를 재배치하는 데 있어 필자는 문장의 주술 관계를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혹스는 텍스트 전체를 일종의 거대한 문장구조(sentence structure)로 간주한 바 있거니와 모든 문장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로 구성된다(Hawkes 1977, 87-106). 텍스트 「사랑의 변주곡」의 각 연을 주어와 술어를 갖춘 한 문장 단위로 재배열해 본 후 이 텍스트의 구조체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 I

1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2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3 都市의 끝에 /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가 /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 三월을 바라보는 마른나무들이 /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 //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우리의 밥찌꺼기 /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

4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 까지도 사랑이다

## II

5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느냐

6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7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에 물이 아슬 /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節度는 / 열렬하다 /

8 間斷도 사랑

9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죽음같은 암  
흑 속을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10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

11 눈을 떴다 감는 기술 - 불란서혁명의 기술 / 최근 우리들이 四 · 一九에서 배운 기술

---

않을 수 없게 한다고 평한 바 있다.

12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III

- 13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며
- 14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暴風의 간악한/信念이며/
- 15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로
- 16 信念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사는 사랑의 위대한 도시에 비하면/너는 개미이나

IV

- 17 아들이 너에게 狂信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18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 19 人類의 종언의 날에/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美大陸에서 石油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새겨둘 말을 너는 都市의 疲勞에서 배울 거다
- 20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 거다
- 21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의심할 거다!
- 22 복사씨와 살구씨가/한번은 이렇게/사랑에 미쳐 날뛰 날이 올 거다!
- 23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같은 잘못된 시간의/그릇된 理想이 아닐 거다

일반적으로 시의 행이나 연은 일상적인 문장구성 방식과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연과 연 사이의 분절, 행과 행 사이의 분절은 대체로 일상적 언어의 통사적 분절과 일치한다. ‘도치’나 ‘시적 허용’ 등을 제외할 경우,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의 시행에 걸쳐 있더라도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다는 점, 문장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절을 기준으로 행 분절을 한다는 점 등 완전한 문장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상적 통사의 분절을 통한 호흡 간격은 유지된다(최미숙 1997, 58). 그러나 김수영의 시들에서 보여주는 문장은 이러한 언어 사용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위의 시도 주어와 서술어가 없는 문장은 물론, 문맥상으로조차 주어나 서술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필자의 시행 재배치는 통사적인 것과 문맥적인 것을 함께 고려하여 임의로 나누어 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두어야 할 것 같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의 변주곡」은 의미론적으로 네 단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네 단락은 I과 II, III과 IV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락을 변별적인 것으로 만드는 요소들 중의 하나로 시어를 들 수 있겠는데 I은 옥망과 도시, II는 사랑의 숲(음식, 절도, 기술), III은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 IV는 아들이 각 단락의 핵심어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이 시 전체의 지배소는 ‘사랑’이다. 이들 핵심어들

은 지배소 ‘사랑’을 향해 수렴의 결과 발산의 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sup>4)</sup>

「사랑의 변주곡」이 의미론적으로 네 단락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I, II 그리고 III과 IV를 각각 다시 묶어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1은 ‘입을 열어라’라는 명령형으로 2는 ‘사랑을 발견하겠다’라는 의지형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들은 12, 10의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와 각각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sup>5)</sup> 3은 통사론적으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도시의 끝—강—강 건너—암흑—마른나무—사랑의 봉오리—쪽빛 산—사랑의 기차—서울의 등불’로 시각적 공간을 연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독특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간의 연쇄에 어울리게 문장의 종결을 최대한 지연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장 구성 방식은 8에서 다시 나타난다. 8에서는 ‘이 방—저 방—할머니가 계신 방—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으로 공간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3과 8은 ‘암흑’이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두 문장은 똑같이 시간적으로는 ‘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3과 8 역시 대응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4는 “가시밭, 덩쿨장미의 가시가지까지도 사랑”이라고 함으로써 ‘사랑’을 식물 이미지와 결합시키고 있다. 사랑과 식물 이미지의 결합은 II의 첫 행, 5에서 다시 나타난다. ‘사랑의 숲’이 바로 그것이다.<sup>6)</sup> 그러니까 I에서 화자가 ‘사랑’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 ‘가시밭, 가시가지’까지에서도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II에서는 사랑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하나의 텍스트 속에서 전경화된 요소들은 체계적인 특성을 띠며, 체계적 전경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텍스트 속에 여러 개로 나타난다. 이들 요소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데, 가장 높은 위계에 놓인 요소가 ‘지배소’이다. 지배소는 작품 속에서 다른 요소들의 방향을 지시하며, 텍스트의 통일성을 부여한다. 물론 이러한 통일성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으로 규정된다. 텍스트의 구조는 지배소를 향한 수렴의 결과 후경의 저항에 의한 확산의 결 사이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역동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다. 수렴은 지배소를 지향하는 경우, 확산(발산)은 지배소 지향에 저항하는 경우를 뜻한다(이승훈 1987, 38).

5) 두 단편(행), 양쪽 모두에서 동일한 상대적 위치를 점유하는 어떤 부분 외에 두 단편(행)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대응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대응은 동일성이나 독립성보다는 유사성이 강조된다(유리 로트만 1987, 154).

6) S4의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까지도 사랑이다’는 S5에서 뿐만 아니라 S6-11을 통해서도 부연된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 연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식물 이미지가 서로 대응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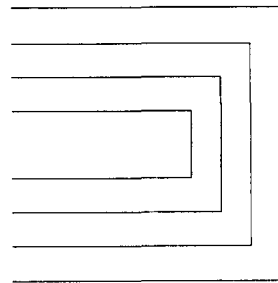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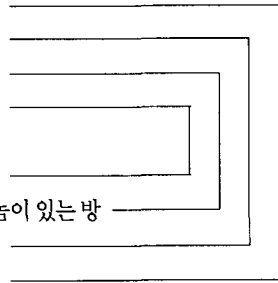
III의 13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I, II에서 화자가 식물 이미지를 끌어들이며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상황(context)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13은 돌연하다고 할 수 있다. '복사씨'는 21, 22에서 다시 반복되어 이 둘이 대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4와 20은 똑같이 이 '복사씨'의 성질에 대해 얘기한다. 그것을 화자는 한마디로 '고요함'이라고 표현한다. 15와 19는 '도시'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5의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로'는 도시의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19에서는 '도시의 피로'라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한다. 16과 17은 '신념, 너'와 '광신, 아들'이 서로 대응된다. 이렇게 III과 IV가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단락으로 의미 구분하는 것은 III과 달리 IV가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은 시 전체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의 각 단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을 달리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략히 도식화해 두기로 한다.

- I 1 입을 열어라
- 2 사랑을 발견하겠다
- 3 도시의 끝-강-강 건너-암흑
- 4 가시밭, 덩굴장미의 가시

- II 5 사랑의 숲
- 9 이 방-저 방-할머니가 계신 방-심부름 하는 놈이 있는 방
- 10, 11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 12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 III 13 복사씨, 살구씨, 꽃감씨
- 14 고요함과 사랑
- 15 봄베이, 뉴욕, 서울
- 16 너

- IV 17 아들
- 19 도시의 피로
- 20 단단한 고요함
- 21, 22 복사씨와 살구씨





위의 도식은 I과 II, III과 IV가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김수영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과 연의 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도식은 「사랑의 변주곡」이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내밀한 구조적 연결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시가 그렇게 산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각 연의 구조를 세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 3. 각 연의 전개양상과 그 체계

「사랑의 변주곡」의 I단락은 3이 복잡한 문장 구성으로 비문이 되어있지만 의미 파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1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2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3 강 건너에 사랑이 있다, 4 이제는 가시밭, 가시가지까지도 사랑이다가 각 문장 단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I을 통해 화자는 사랑에 대한 탐구과정과 그 탐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발견이 ‘도시’라는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와 산이라는 공간이 대립되어 있으며 ‘도시’는 부정적인 공간, 즉 ‘도야지우리의 밥찌꺼기같은’ 곳으로 형상되어 있다. 1의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는 역시 ‘도시’의 욕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도시’와 ‘사랑’의 문제는 III과 IV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I에서는 ‘도시’와 ‘강 건너’의 이항 대립만을 확인해 두기로 한다.

‘욕망’뿐 아니라 이 시의 화자가 ‘사랑’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은 모두 도시의 부정적인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 ‘도시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 ‘암흑’ (1),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2), ‘죽음 같은/ 암흑 속’ (4) 등이 바로 그것이다.

화자는 ‘사랑의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난다고 하여 사랑이 자라는 모습을 ‘슬픔’이 자라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슬픔’이 자랄수록(커질수록) ‘사랑’도 자란다는(커진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물론 이 슬픔은 ‘도야지우리의 밥찌끼/ 같은 서울의 등불’과 관련된 ‘슬픔’이다. ‘서울의 등불’을 돼지 우리의 밥찌끼기에 비유한 것은 역시 ‘서울’이 ‘욕망’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화자는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

나긴 가시가지/ 까지도 사랑이다'라고 말한다. '가시밭'은 화자가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태도를 집약하고 있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즉 화자는 '서울'을 '가시밭'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서울'의 '육망' 뿐 아니라 모든 '도시'의 '육망'을 문제삼는다.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로'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에서의 '사랑'에 대해서는 글을 달리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시 전체를 통해서 시인이 이 근대적인 밤의 도시 현실을 '육망'과 관련된 부정적인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다고 하겠다. 사실 이 시 뿐 아니라 김수영의 시에는 '도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도시'가 가져다주는 '피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 경우 '피로'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강제된 상황을 견뎌내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수영이 '피로'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도시 문명의 '물신숭배'의 문제이다.<sup>7)</sup>

II의 각 문장은 그것을 통사적 맥락으로만 읽을 때,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II가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장들은 어떤 통사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II는 '사랑'이 어떤 이미지들과 결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을 I의 4와 연관시켜 생각할 때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I의 4에서 화자는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까지도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랑'이 도시에 얼마나 편재해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II에서는 이렇게 편재하는 사랑을 식물, 동물 등 여러 가지 이미지와 결합시켜 II의 4를 부연하고 있다.

5는 '사랑의 숲'이 밀려닥친다고 하여 사랑이 식물 이미지로 형상되고 있다. 6에서는 '사랑의 음식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랑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이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동물)로 은유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사랑을 동물 이미지로 형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7에서도 '사랑'은 '절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형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에 비유함으로써 '사랑'을 무생물에 비유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8은 '간단도 사랑'이라는 짤막

7)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김수영의 시정신과 시방략론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바 있다(한명희 2000, 30-42).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랑'을 시간 개념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으로 작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 '간단(間斷)', 즉 잠깐 그치는 것 혹은 잠시 끊어지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긴 시간은 당연히 사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랑을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부터 긴 시간까지 모두 사랑이라는 의미가 이 짧은 문장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8이 사랑을 시간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9에서는 사랑을 공간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 화자는 '사랑'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이어져간다고 한다.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공간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II의 구성 방식이 이러하므로 II에서의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어떤 의미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랑의 숲', '이 방', '저 방', '할머니가 계신 방'의 각각이 지니는 의미를 따지고 드는 것보다 이것이 '사랑'의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법은 10과 11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10에서 화자는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고 하여 사랑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불란서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4·19에서 배운 기술'이라고 부연한다. 그러니까 10, 11은 사랑의 제작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불란서 혁명'이나 '4·19'가 사회 역사적 맥락을 초월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필자는 설명한 셈인데,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현실적인 사회문제를 적절히 끌어들이는 방식이야말로 김수영 시의 득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II의 5~11은 사랑을 동·식물 이미지, 무생물 이미지는 물론 시간 이미지, 공간 이미지와 결합시키는가 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형상함으로써 사랑이 어느 곳에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설명한 II의 내용을 간단히 도표화해 보기로 한다.

⑤ 식물 이미지	생물	자연
⑥ 동물 이미지	생물	자연
⑦ 광물 이미지와 결합	무생물	자연
⑧ 시간 이미지	무생물	자연
⑨ 공간 이미지	무생물	자연
⑩		
⑪		인공

우리는 여기서 이 시의 1, 2가 '육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  
다'로 되어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I의 3, 4와 II의 5, 6, 7, 8, 9, 10, 11을  
통해 화자가 발견한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화자가 발견한 '사랑'  
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또 자연과 인공을 포함해, 그리고 동식물은 물론 무생물에  
까지 편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2에서 화자는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  
는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1과 대응이 되는 한편, III에서의 전환을 위한 준비 기  
능을 가진다.

III과 IV는 담화체계가 바뀌어 "나(아버지)—너(아들)"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I, II  
와는 다른 의미 단락으로 이해된다. '복사씨와 살구씨'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현상적 화자인 아버지는 내포적 청자인 아들에게 사랑에 대한 자신의 '신  
념'을 얘기한다. 자기의 사랑에 대한 신념을 생물로 형상한 것이 바로 '복사씨와 살  
구씨'이다. 이 '복사씨와 살구씨'는 씨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도 '단단함'을 그 주요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또 '씨'는 언젠가는 발화되어 아름답게 꽃이 필 것이라는 가  
능성을 지닌다. '아름다운 단단함'은 바로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이러한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이 신념이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  
어 놓은 것이라고 말한다. '고요함'이란 II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와 관련되어 있는데, 사랑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고요함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질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봄베이, 뉴욕,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필자는 I에서 「사랑의 변주곡」이 '도시'  
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점은 III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I이 화자가 살고 있는 공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비판이었다면 III에서  
는 봄베이, 뉴욕을 포함한 모든 도시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들 도시가 부정적인 공간  
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IV에서 다시 확인된다.

IV는 소위 '이항 대립'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항 대립에서의 각항은  
상대편을 존재케 하는 배경이면서 동시에 상대편을 배경으로 삼아 부각되는 전경이  
기도 하다. 이런 과정과 상호관계를 통하여 양자 사이의 긴장력이 조성된다(Shukman  
1977, 38-45). 여기서 이항대립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현재와 미래이다.

현재/미래  
아버지/아들

(사랑을 앓)/사랑을 모름  
 잘못된 시간/잘못된 시간이 아님  
 단단한 고요함/사랑에 미쳐 날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변주곡」의 IV에는 현재와 미래의 대립구도가 설정돼 있다. 화자인 '아버지'가 현세대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면 '아들'은 다음 세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재를 '그릇된'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미래는 '사랑에 미쳐 날뛰' 긍정적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화자는 이와 같은 대립 구도 속에서, 현재의 암담함을 강조하는 한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IV에서 우리는 중요한 열쇠어(mot-cles)<sup>8)</sup>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의 '도시의 피로'이다. 19에는 '인류의 종언의 날',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 '미대륙에서 石油가 고갈되는 날'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그렇게 먼 날'의 변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자는 "그렇게 먼 날까지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도시의 피로에서 배울 거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도시의 피로'를 겪다보면, 즉 도시에서 부대끼며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이 '도시의 피로'를 만들어내는 요소에는 '욕망', '도야지우리의 밥찌꺼같은 서울의 등불', '4·19' 등이 포함될 것이다. II에서 화자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점과 관련된다. 자신이 소리내어 외치지 않아도 도시의 피로를 겪다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자의 발언이 선언적으로 들리는 것은 '배울 거다', '의심할 거다', '올 거다' 등에서 보이는 '거다'라는 어미에 힘입은 바 크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자의 신념이 비유에 힘입어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는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뛰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한다. 이 날은 화자의 신념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이 '그릇된 명상'이 아닐 것이라고 화자는 다시 자신있게 얘기한다. '명상'은 상상이나 공상과는 다른 것으로 신념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화자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의 시대가 오리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8) 열쇠어는 어휘군 중에서 작품의 해독에 길을 제공하는 어휘이다(다니엘 들라스·자크 필리올레 1985, 50-51).

## 4. 맺는 말

김수영 시다운 김수영 시, 그러니까 단시적이 완벽성을 거부하고 언어 사용에 있어 새로움을 보여준 시, 그러면서도 김수영의 시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를 고른다면 「사랑의 변주곡」이 그 중에 한 편이 될 것이다. 이 시는 김수영 시 특유의 속도감을 잘 보여주는 한편, 그의 시정신의 핵심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사유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변주곡」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기호학의 방법을 원용하여 보았다.

「사랑의 변주곡」을 난해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이 시가 연간 걸침과 행간 걸침의 기법을 널리 사용함으로써 연 단위의 독해에 익숙한 독자들의 독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텍스트의 기호체계를 다시 분절·결합하여 기호들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도 시의 분석에 유용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6연 51행의 이 긴 시를 문장의 주술 관계를 중심으로 재배치해 보면, 4연 23행의 구조가 된다. 그리고 연 I, II와 III, IV는 각각 다른 단락들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전체의 지배소는 ‘사랑’이다. 4연 23행의 모든 시어들이 이 ‘사랑’을 향해 수렴과 발산의 결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시 이해의 ‘열쇠’는 IV의 ‘도시의 피로’이다. 도시의 부정적인 양상은 I의 ‘욕망’, ‘도야지우리의 밥찌꺼같은 서울의 등불’은 물론 III의 ‘봄베이도 뉴욕도 성루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도시의 피로’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사랑’이라고 하겠는데, 화자가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은 매우 독특하다. 그것은 ‘고요함’, 즉 침묵이기 때문이다. ‘복사씨와 살구씨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은 화자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신념’을 식물에 비유함으로써 얻어진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에서 화자는 도시에서의 사랑에 대한 탐구 과정과 그 탐구의 결과—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곳에 편재해 있음을 보여준 후, 이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화자가 ‘사랑’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IV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도시에서 살다보면 저절로 그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의 신념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화자는 ‘한 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뛰 날이 올 거다’라는 확신 속에 있기 때문이다. 화자가 ‘도시 욕망’에 대해 ‘피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둡지 않은 것은 화자의 미래에 대한 신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시에서의 ‘사랑’이 ‘도시의 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 이것은 화자의 도시에 대한 철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 비판이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긴 글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른 글에서 하기로 한다.

## 인용문헌

- 권오만, 「김수영 시의 기법론」, 『한양어문연구』 제13집, 1995.
- 다니엘 들라스·자크 필리올레, 『언어학과 시학』, 유제식·유재호 역, 서울: 인동, 1985.
- 유리 로트만, 『시 텍스트의 구조 분석; 시의 구조』, 유재천 역, 서울: 가나, 1987.
- 유종호, 「시의 자유와 관습의 굴레」,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서울: 민음사, 1983.
- 이상옥, 「자유를 위한 영원한 여정」, 황동규 편, 『김수영의 문학』, 서울: 민음사, 1983.
- 이승훈, 『한국시의 구조분석』, 서울: 종로서적, 1987.
- 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읽기』, 서울: 프레스 21, 2000.
- 정남영, 「김수영의 시와 시론」,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읽기』, 서울: 프레스 21, 2000.
- 조명제, 『김수영 시 연구』,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동호, 「김수영의 문학사적 위치」, 『작가연구』 제5호, 1998.
- 최미숙, 『한국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하정일, 「김수영, 근대성 그리고 민족문학」, 『실천문학』 1998. 봄호.
- 한명희, 『김수영의 시정신과 시방법론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Shukman, A. *Literature and Semiotic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7.
- Hawkes, T. *Structuralism and Semiotic*. London: Methuen, 1977.

[Abstract]

### A Semiological Study of Kim Soo-Young's "A Variation of Love"

Myeong-hee Han  
(University of Seoul)

"A Variation of Love" is a characteristic Kim Soo-Young poem, in that it embodies the poet's innovative use of language and proceeds speedily, like many of his other poems. Above all, the poem reveals the core of Kim's poetical spirit, his speculation about love.

The poem is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it broadly uses run-on lines and even run-on stanzas, a technique that many readers are unfamiliar with. The semiological approach of this paper will bring new light on the poem by restructu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s, that is, by taking apart the sign system of the original text and reconstructing its sentence structure. If we rearrange the poem from its original six stanzas and fifty-one lines to four stanzas and twenty-three lines, we will discover a close connection between stanzas 1 and 2, and between stanzas 3 and 4.

Of the many keywords of the poem, we may establish the dominant word as "love," into which every poetic word converges and from which each word emanates. Another important keyword is "fatigue of the city" in stanza 4. Similarly negative aspects of the city may be found in the line "the same may be said of Bombay, of New York, of Seoul" in stanza 3, as well as in the words "desire" in combination with "the lamplights of Seoul like leftovers in the pig sty" in stanza 1. The persona of the poem tries to overcome the "fatigue of the city" by "love," but the way he realizes love is, somewhat peculiarly, through stillness and silence. The persona aligns "the stones of the peach and the apricot and the dried persimmon" with his faith in love. He calls the stones "beautiful hardness" presumably because that hardness (the stillness and silence) may blossom into beauty. In the earlier stanzas, the persona's quest for love results in an awareness that love is omnipresent, but the persona determines "not to shout it out loud." The reason for this determination is found in stanza 4. Those who experience the "fatigue of the city" will be able to realize it by themselves.

This seemingly defeatist conclusion by no means suggest pessimism, for the



persona holds the conviction that “there will come a day when [one] will rave for love.” This conviction rescues the poem from the dismal mood suggested by the “fatigue of the city.” At all event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fatigue of the city” should not be considered apart from “love.” Yet, strangely enough, the poem embodies a severe critique of the city, and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clarify why this critique appears in the form of “love.” But this will be treated in another paper.